

# “컬링 비리 심각, 인권 보장 방안 찾겠다”



컬링 여자대표팀 '팀킵'의 호소가 사실로 판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벌인 '평창동계 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선수 호소문 제기 특징조사' 결과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경상북도체육회 여자컬링팀)는 친밀한 결속력과 뛰어난 경기력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선수들은 2018년 11월 그동안 지도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경북, 대한체육회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컬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소한 내용과 경상

북도체육회 컬링팀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사항들을 특정 감사했다. 11월19일부터 12월21일까지 5주에 걸쳐 문체부 2명, 경북 2명, 대한체육회 3명 등으로 이뤄진 합동 감사반 7명은 의성군청과 경상북도체육회(경상북도 경산)에서 실지감사를 했다. 외부 회계전문가 2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회계 분야도 검토했다. 합동 감사반은 경상북도체육회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 30여명을 면담했으며,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하고 검토했다. 이번 감사 결과 선수에 대한 과도한 폭언(욕설)과 사생활 통제 등

## 문체부, 경상북도·대한체육회 합동 감사 결과 과도한 폭언·보조금 횡령·컬링팀 사유화 확인

의 인권 침해, 지도자들의 능력 부족 및 부실한 지도, 선수 상급 및 후원금 횡령, 보조금 집행과 정산 부적절,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친인척 채용 비리, 회장 일가의 컬링팀 사유화 의성컬링센터 사유화 등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 6건(중복 포함 수사의뢰 대상자 3명, 2개 기관) ▲징계요구 28건(중복 포함 징계대상자는 10명) ▲주의 1건 ▲환수 4건 ▲기관경고(주의) 4건 ▲개선 7건 ▲권고 11건 ▲통보 1건 등 총 62건의 감사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라 향후 1개월 간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최종적인 결과를 경북과 대한체육회, 대한컬링경기연맹, 경북체육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통보 내용에 따라 징계, 환수, 개선, 사법조치, 권고사항 이행 등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강원원 문체부 체육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감사를 통해 체육 현장에서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결과를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이후 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감사 중 이점이 엇갈린 부분도 공개했다. "선수들의 호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선수들이 제출한 자료, 경북체육회, 대한컬링연맹 자료, 지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 판단했다. 예를 들어 선수들의 소포를 개봉한 것은 확인했지만, 편지를 개봉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폭언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 밝힐 수 없다. 사진 찍어주니까 연예인인줄 아느냐, '서커스하러 왔느냐'란 발언과 외모비하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당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은 선수로 한 사람은 트레이너로 뒀다. 정식 지도자가 아닌 트레이너인데 정식 지도자로 활동했다. 주변 전문가들은 트레이너가 지도자 역량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했다"고 답했다.



## 농구, 월드컵·올림픽 가능성 엇본다

김상식호 오늘부터 중동 2연전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22일(한국시간)부터 월드컵 지역예선 중동 2연전을 치른다. 올해 8월 중국에서 열리는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할 한국은 22일 시리아 24일 레바논을 상대로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마지막 2경기를 벌인다. 잔여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최소 조 2위를 확보하기 위해 1승 이상을 거둔다는 게 김 감독의 목표다. 한국은 E조에서 8승2패로 뉴질랜드(9승1패)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다음달 본선 조 추첨을 앞두고 가능한 높은 순위로 지역예선을 통과해야 한다. 양홍석(KT), 임동섭(삼성), 안영준(SK), 최진수(오리온), 정효근(전주) 등 장신 포워드를 대거 발탁한 점이 눈에 띈다. 모두 내외곽

플레이에 능하고, 속공에 참여할 수 있는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다. 김 감독은 "선수 구성에 변화가 좀 많았다. 월드컵 진출을 확정했지만 본선 엔트리를 정하기 위해선 다양한 선수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소속팀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선수들이다. 레바논전이 쉽지 않았지만 2승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감독은 장기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대한 계획도 살짝 소개했다. 32개국만 출전하는 월드컵에서 한국은 최악으로 꼽힌다. FIBA 랭킹이나 국제 경쟁력에서 쟁쟁한 상대들이 즐비하다. 김 감독은 "그동안은 '저더라도 최대한 적은 점수 차이로 지겠다'는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기자는 마음으로 부딪혀보겠다.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월드컵은 내년 도쿄올림픽 예선을 겸한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내면 본선에 갈 수 있다. 이란과 중국이 경쟁 상대다.

## KIA 양현종 개막전 '시동' 첫 불펜 25개 "컨디션 OK"

내달 23일 등판 예정 KIA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31)이 첫 불펜투구를 하며 2019 개막전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양현종은 20일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연습경기에서 앞서 셀룰러스타디움의 불펜에서 첫 불펜투구를 소화했다. 스프링캠프 시작 20일 만에 첫 투구였다. 불펜에 들어가자마자 포수를 앉혀놓고 25개의 볼을 던졌다. 수석에서 하프피칭을 포함하면 60개 정도였다. 첫 피칭인만큼 전력 투구는 아니었다. 강상수 투수 총괄코치는 "가볍게 던졌지만 컨디션이 좋아보였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계속 불펜에서 투구수를 늘려가며 구위를 끌어올릴 것이다. 캠프에서 첫 실전투구도 한다. 실전은 3월 5일(삼성전)로 잡혀있다. 이념은 계산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던질 것이다"고 밝혔다. 양현종은 오키나와 캠프에서 자율 조정을 하고 있다. 작년 폴타워 투구와 아시안게임까지 많은 이닝을 던진 점을 감안해 천천히 구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른 투수들은 1일부터 불펜투구를 했으나 양현종은 이날 첫 불펜투구를 소화했다. 3월 23일 개막전 선발등판 일정을 감안한 스타트였다.



## 당구도 프로시대 "세계적 투어로 성장시킨다"

프로당구 시대가 열린다. 21일 신도립 씨네큐 영화관에서 프로당구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브라보앤티가 주관한 프로당구 출범 선포식이 개최됐다. 세계 캐롬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은 당구대, 큐, 볼, 나사지(당구대 천) 등 용품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2만2000개 이상의 당구장이 전국의 골목 곳곳에 포진해 있다. 세계에서 당구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프로추진위 위원인 스포츠코리아 연구소 정희운 소장은 "국내 당구 인프라, 경기력, 시청률 지표 등을 종합해 볼 때 분명 당구의 프로화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다"면서 "결국 프로투어를 출범시켜 산업의 확



대와 성장을 꾀할 적절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날 프로추진위는 3쿠션의 국내 외 주요선수들이 참여하는 프로당구협회(PBA) 투어를 오는 6월 출범시키고 세계적인 프로투어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연의 숨겨진 매력

##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새마을,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